

“철도정책 지역차별, 더는 안돼”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용산발KTX의 전라선 증편과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조충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지자체 관계자 70여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철도정책의 전라선 차별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용산발

전주시 등 7개 지자체,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 KTX 증편·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등 정부에 건의

KTX 전라선 증편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전라선 KTX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전라선 KTX 활성화와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강요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전라선 주변에는 연간 1000만 관

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위치해있다.

실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965만명, 순천만국제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540만 명,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명으로,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라

선 이용 잠재고객을 연간 2800만 명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전라선은 최근 발표된 수서발 고속철도(SRT) 계획 단 한편도 배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각종 철도정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또, SRT 개통 이후 KTX 열차운행계획에도 전라선은 하루 평균 왕복 운행횟수가 현행 20회에서 28회로 8회만 증편되는 반면, 경부선은 139회에서 202회로 63회나 증편되고 호남선은 66회에서 100회로 34회 증편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정부가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전라선 등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정책은 다 빠져있어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

이에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는 지난달 13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그간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가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아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김승수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거점인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에 집중돼있는데도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전라선을 소외시키고, 수서발 SRT 운행계획에서 전라선을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외쳤던 국가 국토균형발전과 관광진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또 "전라선 권역 시장·군수들은 마음을 모아 반드시 전라선 KTX를 증편시키고, 수서발 SRT도 전라선이 포함시키도록 하며, 저속철에 불과한 전라선을 복선화해서 고속철로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서관운영위 위원 위촉

전주시는 16일 완산도서관 회의실에서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과 민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전주시 공무원, U-20월드컵 열정을 깨우다

전북현대 이철근 단장 초청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 특강

전주시 공무원들이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배우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1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청년 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전북현대모터스 이철근 단장을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철근 단장은 이날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전주시와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상생 협력사업 발굴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구단 마케팅 등 프로그램 연구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이 단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리는 지방 도시를 연구지로 프로그램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면서 "끊임없는 우수 선수 발탁과 인재육성, 지역과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축구인구 확대,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명문의 반석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5월에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은 전 세계 24개국 약 2000여명이 참여하는 전 세계 스타플레이

어를 배출하는 축제의 장으로, 월드컵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전 세계에 전주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민들의 축구 열기 그리고 전 청원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깨워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전 세계 축구인의 시선 집중 및 국내외 관광객의 대거 방문에 대비해 전통문화와 역사 등 전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U-20 대회를 문화월드컵으로 준비한다면, 전주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에서는 내년 FIFA U-20월드컵 대회의 개막전을 포함한 조별예선 6경기와 16강, 8강, 4강 등 총 9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팀 경기는 조별예선 2경기와 조1위 예선 통과시 16강과 4강 등 최대 4경기가 열리게 된다.

시는 U-20월드컵 준비를 위해 이동국과 국가스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U-20월드컵 지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총 7경기를 1장의 카드로 관람하는 패키지티켓 2017매 판매,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모집, 기반 시설정비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철근 단장은 지난 198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1995년 울산현대 축구단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프로축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3년 전북현대 축구단 사무국장을 거쳐 2005년 단장으로 취임했다. /김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는 16일 '국가위기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원수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광채치고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정을 의지하고 국가를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즉각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4년의 집권 동안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며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정책 등 중차대한 국정운영을 사실상 방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해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최순실 일파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협의회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소통과 불통, 위선과 오만으로 이어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하야를 요구하는 전 국민의 합성을 받아들이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오천만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정권유지만 급급해 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하야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명지 의장단협의회장은 "우리는 전북도민의 준엄한 뜻과 의지를 받들어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하야를 위한 촛불을 들 것이다"며 "철저한 검찰수사와 정치혁신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 수능 당일 순찰차 등 동원 수험생 지원

전북경찰청이 17일 열리는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

전북경찰청은 513명(경찰 392명, 협력단체 121명)의 인원과 순찰차 96대, 싸이가 17대, 행정차량 1대를 동원해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끔 지원 활동을 펼친다.

동원된 인원은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 2km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관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교통사고

로 인한 교통장애 요인 제거에 나선다. 또한, 수험생 탑승차량에 무조건 우선권을 부여해 시험장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시험장 전방 200m지점부터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장을 위해 차량하차 후 도보로 입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험시간에 늦는 학생들을 위해 빈차 태워주기 장소 25개를 설정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잠재투자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전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먹거리산업인 탄소 등 제조업 중심의 잠재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시는 1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국내 탄소기업 14개사와 자동차부품업체 3개사 등 전주시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잠재투자기업 25개 업체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주'를 주제로 전주의 환경·교육·교통 여건과 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전주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 이전 후 성공신화를 이뤄낸 기업의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재 기자

음식점서 현금 휴친 2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불 꺼진 음식점을 노려 현금을 휴친 백모씨(27, 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백씨는 지난 12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소재의 한 음식점의 불이 꺼져있자 시공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40만원을 휴치는 등 15회에 걸쳐 23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